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5월 21일
제1949호

주임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703 968 3010　　팩 스: 703 968 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8-20〉

〈예수님의 승천〉, 렘브란트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가해)

제 1 독 서　**사도 1,1-11** |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 답 송　**시편 47(4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 서　**에페 1,17-23** |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 28,16-20** |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복음 묵상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과 승천은 단일한 구원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요한 14,2). 주님께서는 지상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를 들어 높이셨습니다'(본기도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래아로 부르셨습니다(마태 28,10 참조).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숨어 버린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섰던 그 첫 마음을 되찾도록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 갈릴래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전권 선언'(18절), '세례와 가르침의 명령'(19-20ㄱ절), '영원한 현존 약속'(20ㄴ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으로, 교회의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적 권능'과 '영원한 현존'은 세상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또 그분에게서 희망과 영광을 누리도록 이끄는 교회의 사명(제2독서 참조)이 세상 끝 날까지 이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제1독서 참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나만의 갈릴래아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라 승천하는 삶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성화 해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20

〈예수님의 승천〉, 렘브란트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는 성경을 가장 잘 풀이한 화가다. 그가 1636년에 그린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일깨워 준 작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예수님은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천정을 향하여 승천하신다.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눈부신 광채에 휩싸여 두 팔을 활짝 펴시며 본향으로 가신다. 그런데 그분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못 자국이 선명하다. 그리고 두 팔을 펴신 모습이 십자가상의 모습과 흡사하고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승천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성체성사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곁에는 천사들이 가득하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마중 나온 듯 환호하며 경배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다. 이제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이 채우실 것이다. 성령께서 내리시면 제자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성령과 예수님 사이에 원형으로 별이 빛나는 게 신기하다. 이로써 성령강림과 예수승천은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면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바닥의 하단에는 제자들이 승천을 목격하고 있다. 제자들은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승천하는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승천하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제자, 너무 놀란 나머지 두 팔을 벌린 제자, 경외심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무릎을 꿇은 제자,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제자, 승천하는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제자, 승천 사건을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제자 등 제자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귀향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의 한 가운데 구름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무가 산꼭대기와 하늘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지 않은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향하여 가지를 뻗고 있다. 이것이 승천하는 예수님과 닮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어 본향으로 가셨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처럼 인간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구원의 사다리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야 말로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을 수 없다.

주님과 다시 만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박물관〉

마음으로 말하기 :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 (에페 4,15)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소통을 위해 "가서 보다"와 "경청하다"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음으로 말하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가고, 보고, 경청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소통을 향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진심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둔 이 시대의 무관심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당신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보여 주시고, 일어난 사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양극화와 대립의 시기에 '마음을 열고 두 팔 벌려' 소통하려는 노력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책임입니다.

가톨릭 언론인의 수호성인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음으로 말하기"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악용하는 흐름이 있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이 온유한 살레시오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아, 용기와 자유를 갖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하며,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의 유혹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생명을 나누는 선물입니다. 저는 온화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교회의 소통을 꿈꿉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웃,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소통이며 신앙의 불을 지필 줄 아는 소통입니다. 들을 때의 겸손과 말할 때의 담대함에 바탕을 둔 소통은 진리를 사랑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전쟁, 증오와 반목, 모욕적인 폭언 등 악습을 이겨내기 위해 **평화의 언어를 증진**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이 확산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모든 형태의 여론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적인 화법을 거부하고, 민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전쟁 바이러스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는 마음의 회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닫히고 분열된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고, 우리가 전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았는데,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직업이 아닌 하나의 사명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전문 보기 : https://cbck.or.kr/Documents/Pope/20230146〉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홍보 주일)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배 골프 대회

- 일시 : 5월 21일(일) 오후 1시, Penderbrook Golf Club
- 목적 : 본당 구역 및 신자 상호간의 친교와 일치를 위해
- 접수 : 미사 후 친교실 (Hole 스폰과 도네이션)
- 이익금은 선교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6 ME 부부 주말 안내

- 일시 : 5월 27일(토) 오후 7시 – 29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5월 7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7 5월 28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 회의 / 바오로회(30대 남녀 교우)

8 2023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6월 4일(일) 오전 11:30 – 오후 4:30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9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안내

- 일시 : 5월 29일(월) 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 우천시 Holy Spirit 성당에서 미사)

10 제6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

제6기 아버지 학교에 형제님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아버지로서 나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
- 일시 : 2023년 6월 24일(토) – 25일(일), 1박 2일
- 장소 : The Northern VA 4H Education Center (600 4-Hcenter Dr. Front Royal, VA 22630)
- 접수 기간 및 장소 : **6월 4일(일) 까지** 친교실, 성당 입구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 **(선착순 40명**, 수강료 $180)
- 문의 : 최 아델라 (703) 470-1220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5월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기억하고 공경하는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새기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총의 성모 성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오로딸 콘텐츠〉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5월 14일(부활 제6주일)

봉헌금	$ 6,705.00
교무금	$ 4,020.00
교무금(신용카드)	$ 4,160.00
감사 헌금	$ 1,200.00
2차 헌금	$ 2,412.00
온라인 봉헌	$ 2,640.00
합계	**$ 21,13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5월 25일(목) 오후 5:00 – 6:00
5월 26일(금) 저녁 8:00 – 9:00
5월 28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빠다킹 신부의 맘고생크림 케이크 (제9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나"'
– 조명연 마태오 신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Teach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Mt 28,20)

|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